‘전략적 결별’이냐…‘각자도생’ 이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탈당 전·현직의원들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권 전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무소속 김용태 의원. /연합뉴스

제3당 가능성…대선전 보수진영 주도권 경쟁 예고

탈당파 대선주자군 더 많아 다시 의기투합 관측도

결국 갈라선 친박-비박

새누리당이 결국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로 나뉘어 갈라서기로 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교섭단체 구성기준인 20명을 훨씬 넘는 35명이 탈당한 비주류가 2차 탈당까지 감행할 경우 국민의당(38석)을 뛰어넘는 제 3당이 되면서 단숨에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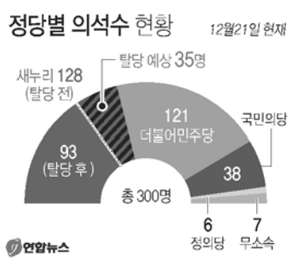
특히 탈당 세력이 잔류파에 비해 훨씬 많은 대선주자군을 확보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관심거리는 이번 보수정당의 분당이 향후 제3지대에서 정계개편을 촉발할 ‘태풍의 눈’이 될지 아니면 현사태가 불리한 상황에서 대선지형을 극복할 일시적 ‘분가’(分家)에 머물지 여부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친박계가 너무 고압적이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결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촛불민심에서 보여준 것처럼 반국민적 행보를 하는 정체세력은 순식간에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기 때문에 비박계가 탈당 후 다시 통합 행보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비박계도 탈당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내린 만큼 친박계와의 재결합 가능성을 일축하며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4선의 정병국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친박세력과의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 “분당을 해서라도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친박과 합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당의 명분으로 과거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패권주의의 배격과 합리적 보수정당을 내건 만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비박계의 의지다.

반면 친박계는 비대위를 구성, 재창당 수준의 변화에 성공하면 기존 보수층의 지지를 원동력으로 재기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대선 전 탈당 세력을 다시 규합, 보수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양 진영이 합종연횡을 거듭하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합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은 있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결국은 박 대통령과의 거리에 차이가 있을 뿐 이념과 정책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에서 “정치권에서는 ‘위장이혼’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양쪽이 보수라는 가치에서는 일치한다”면서 “대선은 우파와 좌파의 이념적 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기투합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중립 성향의 의원도 “비박계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대권 주자로 밀고, 내년 1월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연대하려 할 것”이라면서 “결국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재편한 친박계와 힘을 합쳐 진보진영과 1 대 1 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도권 17명·PK 10명…TK 2명 불과

탈당 면면 살펴보니

탈당을 결의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규모가 35명에 이르면서 면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주류는 ‘비박’(비박근혜)계로 통칭하지만 다양한 부류의 정치인들이 모여 있다. 우선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개의 명확한 분파가 존재한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21일 새누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무성계’가 대략 10~15명, ‘범유승민계’는 10명 안팎 정도로 각각 구분된다.

김 전 대표 진영에는 강석호·권성동·김성태·김학용·이진복 의원 등의 최측근 그룹을 비롯해 강길부·이군현·여상규·이종구·이은재·정양석·홍문표·박성중·정운천 의원 정도가 추려진다. 이중 강석호 의원은 명단 발표 후 ‘탈당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원내대표 측근으론 김세연·이혜훈·박인숙·유의동 의원 등이 거론되고, 이학재·오신환·하태경 의원 등도 ‘범유승민’계로 묶인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그밖에 분당 공동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정병국·주호영 의원을 필두로 심재철·김재경·나경원·김영우·박순자·황영철·홍일표·장제원·윤한홍 의원 등이 있다.

새누리 '탈당 결의' 비박계 의원 명단

선수 (35명)	이름 (21일 현재 새누리당)
6선 (1명)	김무성
5선 (2명)	심재철 정병국
4선 (6명)	강길부 김재경 나경원 유승민 이군현 주호영
3선 (15명)	강석호 권성동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학용 박순자 여상규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혜훈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재선 (7명)	박인숙 오신환 유의동 이은재 장제원 정양석 하태경
초선 (4명)	박성중 윤한홍 정운천 김현아(비례대표)

연합뉴스

탈당 의원들을 지역적으로 분석하면 수도권이 압도적이다. 서울 지역구의 경우 전체 11명 가운데 2명(김선동·지상욱 의원)을 제외한 9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경기·인천 지역구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명이 동참했다.

영남권은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의원들의 탈당 규모가 크게 달랐다. PK는 김 전 대표를 포함 10명에 달하는 반면, TK는 강석호 의원이 탈당 유보를 선언, 2명이 전부다. 그외 강원이 2명, 충남·전북 1명씩이다. 호남 출신으로는 광주·전남 출신인 심재철·이종구·정양석 의원과 전북이 지역구인 정운천 의원 등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6년만에 4당 체제

민주당 원내 1당으로…1여3야 치열한 수싸움 전망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의원 35명이 21일 집단 탈당을 결의함에 따라 국회가 다시 4당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비박계가 예고한 대로 오는 27일 집단 탈당을 결행할 경우, 기존의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 체제가 ‘비박계 신당’이 가세한 4당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다.

1987년 개헌 이래 4당 체제가 등장한 것은 1988년 총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1988년 4월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의 결과가 나와 4개의 교섭단체가 탄생했다.

그로부터 2년여 지나 1990년 5월 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3당의 전격적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하면서 4당 체제는 막을 내리고 양당체제로 재편됐다.

비박계의 탈당이 완료되면 각 정당의 지위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현재 각 정당의 의석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 128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이다. 하지만 비박계의 집단 탈당을 통한 새누리당 분당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서고, 새누리당은 100석 이하의 두 자릿수 정당으로 주저앉게 된다.

3당 지위를 누가 갖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미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포함, 현재까지 비박 ‘탈당파’는 36명 정도로 예상되지만 27일까지 보다 많은 의원들이 탈당 대열에 합류하면 국민의당 의석수를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원순 “대통령 임기 3년 조정 가능”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차기 정부는 전면적으로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과도적 성격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시장은 “1987년 헌법이 2017년 새로운 헌법 체제, 정치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정파적 이익을 넘어 우리가 개헌 내용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토론해봐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도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한 데 대해선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는데다, 이미 예측됐던 일 아니냐”고 답했다. 새누리당 분당 사태에 대해선 “새로운 정치질서가 국민이 바라는 대로 만들어지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 잠룡들 광주로…광주로…

손학규·김부겸 오늘 지지자 결집…안희정 28일 기자간담회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해 반문(反文) 정서가 강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잇따라 광주를 찾는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광주를 방문하고, 오는 28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광주를 찾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 17일 금남로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 등도 광주 금남로 촛불집회에 참석하거나 시국강연 등을 가졌다.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을 주장하고 있는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국민주권개혁회의 광주·전남본부 보고대회에 참석한 뒤 남광주시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는 등 야권 심장부인 호남 지역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이날 광주를 찾아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정책간담회, 새희망포럼 광주청년 호프 타임 등을 갖는 등 숨가쁜 행보를 펼칠 예정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는 28일 광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 대표 1522·3396

감정가 140억, 최저가 78억
목포시 석현동 / 4층 / 대지 3659평 건물 2522평

감정가 2억9천, 최저가 2억9천
서구 금호동 / 2층 / 대지 57평 건물 65평 / 안집 32평

경매
골프연습장 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
광양시 성황동 / 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50타석 / 실외스크린 12룸 / 중마초등학교 서측
수익형 빌딩 감정가 24억 4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풍덕동 / 10층 / 대지 106평 건물 690평 / 일반상업지역 / 54호실 / 코너 / 수익률 14.7%
상가 감정가 16억, 최저가 16억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 4층 중 1층 / 건물 35평 / 코너 / 주차장
모텔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

매매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운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수익형 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답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모텔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 주 성